

I. 개 요

1. 일시 : 2013. 5. 28. (11:00~12:30)

2. 장소 :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층 회의실

3. 발표자 :

한국국제협력단 ODA교육원 강규원 전문연구원

4. 참석자

권 울(KIEP 개발협력팀, 연구위원)
 정지원(KIEP 개발협력팀, 연구위원)
 정지선(KIEP 개발협력팀, 전문연구원)
 송지혜(KIEP 개발협력팀, 연구원)
 이주영(KIEP 개발협력팀, 연구원)
 유애라(KIEP 개발협력팀, 연구원)
 홍이경(KIEP 통일국제협력팀, 연구원)
 이지연(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)

5. 제목

— “한국의 차세대 세계시민교육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현황조사”

II. 주요 발표내용 (상세 내용 별첨 참조)

- ☐ 경제 및 교역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ODA 규모도 증가하는 반면, 청년층의 ODA에 대한 인식 및 세계시민의식이 부족한 실정임.
 - ODA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차세대 시민교육이 필요함
- ☐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요소는 ‘가치관과 태도’, ‘지식과 이해’, ‘기술(skill)’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
- ☐ 호주는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주안점을 ‘사회적 정의와 인권’, ‘상호의 존성과 세계화’, ‘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’, ‘평화구축 및 갈등해결’, ‘지속가능한 미래’에 둠.
- ☐ 영국의 경우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별로 연령대에 맞추어 실시함.
- ☐ 국내 세계시민교육은 정부, 민간,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 짐.
 - 정부교육은 KOICA ODA교육원을 통해서, 민간교육은 다양한 NGO를 통해서, 학교교육은 동아리나 교과서에 포함된 간략한 개발협력 관련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짐.
 - 한국의 세계시민교육은 민간차원의 교육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음.
 - 세계시민관을 활용하여 개발협력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발간된 교과서는 아직 없음.
- ☐ 현재 ODA교육원은 개발협력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ODA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 - ODA교육원은 차세대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초중고 수준별 교안을 개발하고, ODA 관련 동아리 5개를 선정하여 교안에 맞는 집중교육을 시범적으로 지원할 예정임.

- 교안은 현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(KCOC)와 개발 중에 있음.
- 학교를 통한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며, 학생의 이해도와 교사의 교육목표가 서로 부합해야 함.
 -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, 교육의 목적 및 수요조사를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.
 -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, 민간, 학교가 참여하는 차세대 세계시민교육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.
- 차세대 교육 이외에도 고등교육 수준에서 국제개발협력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해외대학교들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야 함.
- 일본은 대상별로 교육 목표를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음.
 - 이에 ODA 교육원도 국제협력 전문가, 수원국 사업관련자, 해외파견 전 전문가, 교사 및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예정임.

III. 주요 논의사항

- 교육은 공공재로서 특정단체나 기관이 담당할 경우 효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많음.
 - 특히, 민간교육기관의 목표나 타겟이 기관의 활동방향에 의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.
 - 모금, 참여 및 관심 환기와 같은 기관의 목표에 의해서 개발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.

- 홍보나 교육을 중앙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국가들도 존재하며, 기관이 선의에서 개발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없다면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우려가 존재함.
- ODA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, NGO의 순수성 때문에 개발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높았으나, 영세한 NGO의 경우 개발교육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실시할 가능성이 높음.
- 개발교육 분야에서 NGO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상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발교육에 대한 체계성이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자 함.
 - 일본의 경우, JICA의 Global plaza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틀을 잡아가고자 함.
-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세계시민교육의 경우, 각 단체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특징이 다름.
 - 국제 NGO의 국내지사의 경우,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개발교육 교재를 국내에서 활용함.
 - 굿네이버스는 온라인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,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은 대규모 행사를 주최하기도 함.
-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차원에서 개발교육 실무자 모임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 - 또한 중소단체의 세계시민교육에서의 왜곡을 막기 위해 강사를 양성하고,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, 교재를 개발하고 있음.
- 장기적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세계시민교육내용을 이해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체득화할 수 있도록,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만들어

서 교과과정 내에서 수업을 통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음.

□ ODA전문가 자격증은 2011년 처음 실시되었고, 초기에는 응시자격을 ODA교육원 교육과정을 4개 이상 수료한 사람으로 한정해 응시 인원이 매우 적었으나, 현재 응시자격에 제한을 없앤 상태임.

– ODA전문가 자격증에 대한 수요는 높은 편임.

– 현재 ODA전문가 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은 아니나, KOICA 취업이나 봉사단원 지원 과정이나 조달과정에서 혜택을 주고 있음.

□ 차세대 세계시민교육은 ‘틀’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하며 효과에 대한 평가도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됨.

□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교육의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– 현재는 강사의 강의평가와 같이 투입(input)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– 특히, 차세대 교육 이외에 ODA교육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확인해야 함.